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6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9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이수민(한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이사장)

### 장애인계 뉴스

1. 런던 장애인올림픽 폐막, 우리나라 종합순위 12위
2.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 합헌결정을 위해 시각장애인들 한 목소리를 내다
3. 삼천리, 도시가스 고지서 접자로 발행
4. 영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꿈꾸는, 제13회 장애인영화제
5. 수중세계의 특별함을 경험했어요!...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스킨스쿠버다이빙교실 열어
6. 시각장애학생들의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7. 의안 지원 사업안내
8. 한국시각장애인가카데미, 회지 '지성과 실천' 발간

사람이야기: 600여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원제 대린원 원장

독자마당: 26살의 늦깎이 수학여행 / 서복희(부산광역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9월 1일~9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4): 더치페이와 웨딩플래너의 순화어는?

~~~~~

포커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수민(한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재단법인 한남장학재단이사장)

KBS 시각장애인 앵커 임명 소식에 이어 법원의 시각장애인 판사의 임명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과 흘린 땀에 우리들은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다. 사실 일자리를 구하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하늘의 별따기이며 장애인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다. 일자리 창출은 최근 한국은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빠지지 않는 과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사이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43개 사립대학을 내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발표했다. 이를 선정하는 중요한 평가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다. 그래서 교수들은 기업을 방문하며 학생들의 취업을 부탁하기도 한다. 학생들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동아리까지 만들어 활동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일 자리를 만들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러한 사회현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굴뚝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바뀌고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면서 급격한 인력감축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3D 직업(열악하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 기피 현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고용의 유연화란 미명하에 임시계약직, 사내하청 등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는 일자리라고 생각되는 세칭 대기업 또는 신이 내려준 직장이라는 공기업과 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재수, 삼수를 하며 젊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정부 당국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당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더불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 개발이다. 장애인재활교육에서 더 높은 단계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한 가지 신체의 장애가 모든 잠재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때로 다른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각 장애인들도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특정 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장애인 사회 속으로 들어 가야한다. 물론 편견과 무시가 만만치 않겠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결국은 우리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의 능력을 국가 발전과 성장 동력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가 기대하는 공정한 사회, 즉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비장애인 사회와 언론매체에서 나를 국내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 화학자라고 부른다.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화학을 가르치고 연구를 했을까 궁금해 한다. 사실 화학이라는 학문은 원자나 분자의 구조와 특성 및 분자설계와 합성으로, 아무도 볼 수 없는 미시적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못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나 혼자의 생각일지 모르나 외과수술은 노력한다해도 시각장애인이 정안인보다 잘할 수 없겠지만, 내과나 정신과는 적절한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 시각장애인이 더 좋은 의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3대 인명사전 편찬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ABI(미국인명정보기구)가 2011년 최우수 과학자로 나를 선정했고 영국의 IBC(국제인명센터)에서는 나를 2012년 TOP100 우수과학자로 선정했다는 연락을 보내 왔다.

그들은 내가 시각장애인인줄 모른다. 그저 나의 연구업적만 보고 그들의 기준으로 선정한다. 프리미엄도 편견도 없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평가하는 곳이 되면 좋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18). 성경 구절처럼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추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시각장애인 전문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

## 장애인계 뉴스

### 1. 런던 장애인올림픽 폐막, 우리나라 종합순위 12위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펼쳐진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의 열전이 모두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씩을 기록하며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지난 베이징 대회 때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메달 목표치인 금 11개, 은 10개, 동 13개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종합순위에서는 목표를 달성했다.

런던장애인올림픽에는 166개 나라에서 4,3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503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선수 88명과 임원 47명을 합쳐 13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유도종목에서 시각장애인인 최광근 선수가 12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9월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단식을 갖고 공식일정을 마무리했으며, 4년 뒤 브라질 리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해단식에서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종합 12위는 200일 동안 이천훈련원에서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며 향후 지원을 약속했다.

### 2.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 합헌결정을 위해 시각장애인들 한 목소리를 내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병돈, 이하 안마사협회)는 지난 9월 12일과 18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안마사 자격제도 합헌 기원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합헌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행 의료법의 안마사제도를 합헌으로 결정 내렸으나 2011년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 8월에는 스포츠마

사지업계 종사자 등이 안마사자격제도가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과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안마는 우리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증장애인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외국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의 자동판매기 운영권, 간이식당, 카페테리아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스페인은 복권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수단인 안마사자격제도마저 위기를 맞고 있어 안타깝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에서 안마사협회는 안마사자격 합헌 판결 외에도 3호 이하 침시술권 보장, 안마사의 안마업권 공공부문 보장, 안마원 방송 광고 및 아파트 상가 내 안마원 개설 허용 등을 주장했다.

### 3. 삼천리, 도시가스 고지서 점자로 발행

삼천리(대표 신만중)가 업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점자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고객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고지서와 함께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 안내문에는 필수 정보인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금액, 미납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도시가스 요금고지서를 통해 9월까지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정기분 요금고지서 발송 때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삼천리 고객센터(전화: 1544-3002)로 문의하면 된다.

삼천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소외계층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4. 영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꿈꾸는, 제13회 장애인영화제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장애인영화제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이번 영화제에는 다큐멘터리영화에서부터 장르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영화들이 상영됐다.

개막작으로는 26년 동안의 시설에서의 생활을 접고 혼자만의 자립생활을 시작한 주인공 수양의 일상을 담담히 다룬 '두번째 계절'이, 폐막작으로는 PDFF(장애인영화제) 경선 대상작인 '2010년, 서울(김민철 감독)'이 상영됐다.

영화제 기간에는 PDFF 경선 경쟁부문에 출품된 총 39편의 작품 중 예선 심사를 거친

27편의 작품이 관객에서 선보였다.

PDFF 경선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2010년, 서울'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부양의무제도의 허상을 통렬하게 고발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우수상에는 '망원경과 텔레파시(박영민 감독)'와 '청이(김정인 감독)'가, 인권상은 '이 부부가 사는 법(김세미 감독)'이, 신진작가상에는 '타들어가는 내 마음(박지호 감독)'이, 특별상은 '징후 (조재민 감독)'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관 로비와 방송회관 주변에서는 속기체험, 장애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된 전 작품에는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이 제공됐으며, 관람료는 모두 무료였다.

## 5. 수중세계의 특별함을 경험했어요!...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스킨스쿠버다이빙교실 열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한정석, 이하 노원복지관)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백암해변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각장애인 스킨스쿠버다이빙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스킨스쿠버다이빙교실은 매년 수영교실, 등산교실, 스키캠프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원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첫째 날인 9월 6일에는 이론교육과 스킨다이빙체험(스쿠버 장비가 아닌 간단한 보조용구를 부착하고 물속에 잠수하는 것)을 실시했으며, 참가자들은 스킨다이빙을 통해 바다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고 킁, 턴 등을 연습했다. 이날 저녁에는 노원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실제로 바다에 나가 스킨스쿠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전문 강사와 1대1로 짝을 이루어 스쿠버다이빙체험을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은 수심 7m 깊이까지 내려가 전복, 불가사리, 해삼 등을 만져보고 수중세계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노원복지관 이상훈 재활교육팀장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참가 시각장애인 10명 모두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을 큰 어려움 없이 체험하여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노원복지관 박준석 사무국장은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과연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볼링, 래프팅, 스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시각장애인들이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면서,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아 내년에도 스쿠버다이빙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6. 시각장애학생들의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이하 윈더폴론)과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노원복지관)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윈더폴론과 함께하는 도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시각장애학생들이 골든벨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전국의 시각장애학생 100여명이 참가했다. 윈더폴론은 30여명의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장학금을 포함한 비용 전액을 후원했다.

객관식문제는 점자로 새겨진 숫자판을 사용했으며, 주관식 문제는 윈더폴론의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과 1:1로 도우미가 되어 학생이 말한 답을 화이트보드에 대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전 골든벨에 이어 펼쳐진 재능공연에서는 끼가 넘치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으며, 케이블채널 인기프로그램 <플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에서 개성적인 목소리로 인기를 얻은 성우 서혜정 씨가 사회자로 참여해 더욱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학생은 “학교를 대표해서 골든벨을 올리기 위해 점자책을 열심히 보면서 준비했다”며 “끝까지 가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면서 공연도 즐기면서 노는 것이 정말 즐겁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윈더폴론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독거노인 가정방문, 문화체험, 명사초청 특강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소외 받는 장애인과 학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윈더폴론이 소비자금융 업계를 넘어 타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윈더폴론은 지난 9월 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저소득 조손세대를 위한 후원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차량지원 등의 사회공헌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매년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 김장나누기, 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원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7. 의안 지원 사업안내

의안을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서울, 경기, 인천 거주)은 광명라이온스클럽을 통해 의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33회 흰지팡이의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0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광명라이온스클럽에 복지카드 사본,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대상자는 11월 1일까지 개별통보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라이온스클럽(전화 02-578-2449, 011-723-5846)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 8. 한국시각장애인가카데미, 회지 '지성과 실천' 발간

한국시각장애인가카데미(이하 시각장애인가카데미)는 지난 9월 15일 회지 '지성과 실천' 1호를 발간했다.

해당 회지에는 시각장애인가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회원들의 다양한 글이 실려 있

다. 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시각장애인 명단을 정리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도 소개하고 있다.

넓은마을 공개자료실 기타 코너에 접속하면 회지 원고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회지 및 시각장애인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843-44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람이야기

600여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원제 대린원 원장

이번 호 브레일 타임즈에서 만나볼 인물은 김원제 대린원 원장이다. 김 원장은 현재 대린원, 홍파양로원, 컴퓨터중증요양원 등이 속한 홍파복지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홍파는 그의 어머니 홍영기 씨의 호이다.

혼자 시각장애인 시설을 힘들게 운영하시는 어머니를 돕고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맹인대린원 사무국장으로 입사해 2년 뒤 시설장으로 취임한다. 이후 40년간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불우노인 200만 명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왔다.

대린원 외에 홍파양로원, 컴퓨터중증요양원, 영기노인전문요양원 등의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재를 출연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9월 7일 제1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열린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내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일을 놓을 수 없다. 급여를 받고 안 받고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장애인을 위한 일은 천직이자 소명이기 때문이다. 힘들었던 과거도 행복이었다고 말하는 김원제 원장의 얼굴에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해 지는 미소가 머물러 있다.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우선 국민훈장 수상하신 것 축하드린다.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나를 추천해주었는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시각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고 상을 받았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느낀다. 사회에 배출한 원생들이 본인들의 몫을 하며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 같아서 그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셨을 것 같다

“물론이다. 나 같은 경우 어머니와 나를 1세대, 2세대로 구분할 수 없다.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머님이 원장, 내가 국장이었다. 운명 같은 거였다. 그때 월급도 없었다. 내가 외아들이었으니까. 어머님 혼자 고생하고 계셨기에 함께 하게 됐다. 처음에는 참 힘들

었다. 당시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몹서리를 치던 시절이었다. 운명처럼 시작한 그 일이 여태껏 이어졌다.”

-체육대학교를 다니셨는데 전공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게 된 건 어머니의 뜻이셨는지 본인의 의지였는지 궁금하다.

“전공이 체육교육학이었다. 결국 학생들을 배출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보면 연관되어 있다.(웃음) 자연스럽게 일을 맡게 됐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어머님이 자식보고 하자고 하셨겠는가. 몇 십 명의 시각장애인을 먹이고 재우는 일을 어머니 혼자서 하시기에는 버거웠다. 어머니를 돕고자 시작하게 됐다.”

-시각장애인과 인연을 맺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수유리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 시각장애인 김석안 씨였다. 중도시각장애인 교육기관이 전무할 때였다. 미인가로 운영하셨는데 시설이 있던 터를 땅주인이 파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었다. 어머니께 시설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어머니는 서울시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터를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찾아가셨고 엄청난 노력으로 지금의 부지를 얻게 됐다. 지역사람들과 다툼도 많았다. 역사를 말하자면 거의 전투와 같다. 어디든 마찬가지로겠지만 지금에 오기까지 힘든 역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곳을 고향처럼 생각해주는 졸업생들이 있어 참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의 추모식을 지금도 해주고 있다. 어머니에게 그들은 자식 같은 존재였다.”

-운영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가.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던 때가 아니었다. 최소한의 쌀과 반찬값을 배급받는 정도였다. 직원 월급 같은 건 꿈도 못 꿀 때였다. 그때는 어려운 게 정말 참 많았는데 지금 자리를 잡고 돌아보니 그것도 추억이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원원은 없었을 것이다.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고 철들면서 자신의 환경을 우울하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그때 시절들이 그리워진다. 그런 마음인 것 같다.”

-오랜 기간 운영을 해온 것은 분명 힘든 점 보다 보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우리 졸업생들은 거의 다 사회로 진출했다. 남아있는 분들은 30여명 되는데 연세가 너무 많거나 수학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와 함께 나이를 먹고 돌아가시게 되면 지

금의 시설은 없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수용과 교육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분리가 됐다. 교육생들은 통학을 하고 있다. 교육시설은 계속해서 남겠지만 수용시설은 현재 계신 분들까지 운영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다.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자립을 강조했고 굉장한 압력으로 사회에 내보냈다. 다행히 그것이 성공했다. 그것 이상 큰 보람은 없다. 장애인들에게 바라는 모델이 자립인데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점이 잘 된 것 같다. 안마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원생들은 나에게 영웅이다.”

-9월 12일 안마사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제도 합현을 위한 집회를 벌였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시각장애인 안마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의 사정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가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이다.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과거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봉사’의 ‘사’자가 선비‘사’자이다. 장님은 지팡이를 든 사람을 높인 말이다. 그만큼 존중받던 계층이었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주어진 직업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자립지원 예산이 주어졌는데 포기했다. 맹인에게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료와 운영비를 받아서 쓸 수는 없었다. 당시 정부에서 시행한 시각장애인 직업교육은 피아노 조율, 박스조립, 전화교환수였다.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발전해도 시각장애인의 직업이 안마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중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직업선택의 자율권보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보호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제도가 다른 이들에게도 허용이 된다면 안마업계는 엉망이 될 거다. 정식으로 해부학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마사지만 조금 배운 무자격 안마사와 비교될 수는 없다고 본다. 최동익 회장님이 국회의원이 된 만큼 기대를 갖고 있다.”

-대리원 입학생과 졸업생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지.

“크게 변화는 없다. 문제는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말 바람직했던 점이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취업을 책임지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는 후배를 이끌어주고 싶어도 안마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줄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한 가게가 유명해져서 주변에 가게들이 모여들면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안마도 그렇다. 안마를 받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예전 노인들은 안마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가는 판에 나눠먹자고 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시각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 누가 유리하겠는가. 답은 뻔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가 이해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보호차원에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계속 될 것이다. 걱정스럽다.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뺀 것이 정의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내년에 퇴임한다. 사실 10년 동안 원장을 안 맡다가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온 거다. 다시 맡은 지는 1년밖에 안 됐다. 아쉬운 마음은 없다. 왜냐면 떠나도 계속 지금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장만 맡지 않을 뿐이지 죽을 때까지 이일을 할 것이다. 월급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퇴임 이후의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지금과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이다. 시설장을 뽑아서 운영하더라도 서포터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흥파법인 이사장을 맡아서 계속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레일 타임즈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어려워져도 용기 있게 살자. 어느 계층도 사회에 압력은 받는다. 뭉쳐야 한다.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최선을 다해서 맹인계가 뭉쳐서 안마업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다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한다. 우리가 밥장사를 하다가 안 된다고 국수장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우리에게 안마는 유일한 직업이다. 이것을 침범하는 사람들에게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

독자마당

26살의 늦깎이 수학여행

서복희(부산광역시)

“언니!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간대!”

“뭐? 수학여행? 정말이야?”

같은 반 동생이 건네 온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수학여행을 가다니. 내 나이 26살.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수학여행을 간다. 그것도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맹학교 고등부 3학년 으로서 말이다.

‘고등학교 때 못 가본 수학여행을 지금에서야 가다니...’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집안 형편 상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가지 않았다. 때를 쓰면 갈수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엔 수학여행을 가기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수학여행이란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로 간다고 들었어.”

“뭐? 제주도?”

나는 제주도란 말에 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내가 비행기를 타는 구나’ tv에서나 봤던 비행기를 실제로 탈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척 설렘.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한동안 우울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듯 기분이 좋아졌다. 좀처럼 느끼지 못한 기분이었다.

내가 장애인이 된 건 맹학교에 들어오기 한달 전 장애 등급을 받고서였다. 20살부터 점점 시력이 안 좋아졌고 그 원인은 후천성 황반변성이었다. 2006년 나는 3급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처음엔 장애등급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맹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애 등급을 받고 바로 맹학교 2학년으로 입학했다. 처음에는 생소한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마치 별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올해 수학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수학여행을 간 날,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시력이 좋아 혼자 보행하기 힘든 아이들을 양쪽에 데리고 다니며 비행기에 올랐다. 처음 타는 거라 약간 긴장을 했지만 나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침착해지는 것 같았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창가에 비친 하늘을 보았다. 점점 작아지는 건물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하늘. 하늘을 나는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곧 제주도에 도착한다는 방송이 들렸다. 비행기로 가니 제주까지 정말 금방 도착했다. 언론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제주도를 이렇게 실제로 올수 있어서 기뻐다.

수학여행 일정은 2박 3일이었다. 날씨가 좋았더라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아쉽게도 3일 내내 봄비가 촉촉이 내려 제주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자세히 구경하지 못해 아쉬웠다. 제주도는 한국이지만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도로가에 서있는 나무들이며 탁 트인 도로 등이 여행지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듯 했다.

여러 곳을 둘러보던 중 내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은 식물원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식물들이 온실에 피어 있었다. 개인적으로 꽃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식물을 한꺼번에 보니 너무 좋았다. 특히 열대식물들을 보니 마치 타국을 여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제주도는 참으로 구경할 곳도 색다

른 곳도 많아서 가는 데마다 마음이 설렘다.

“언니 앞에 뭐 있어요?”

“있이 넓적한 열대식물이야. 한 번 만져볼래?”

나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동생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하나 만져보게도 하고 설명도 해주면서 수학여행의 추억을 쌓아갔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곳은 우도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것부터 생소했지만 난생 처음 배를 타고 그렇게 멋진 섬에 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우도는 섬 모양이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배에서 내린 우리들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섬을 구경했다. 푸른 하늘과 넓게 펼쳐진 보리밭의 풍경은 내 머릿속에 아직도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다. 우도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중심시야가 없어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속에 그려지는 풍경은 화가가 그려놓은 한 폭의 멋진 그림이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로 떠날 때의 설렘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있었다. ‘꼭! 다시 와봐야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생각했던 말이다. 제주도, 참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섬. 다시 찾을 때는 더 새로운 풍경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시 가는 그날을 꿈꾸며, 지금 나는 추억을 회상하며 미소를 지어본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9월 1일~9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9월 1일(토요일)부터 2일(일요일)까지 런던하계패럴림픽을 참관하고 참가 선수단을 격려했다.

3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를 전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이어 민주통합당의원모임인 ‘민주동행’ 전체모임에 참석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등에는 장애인참정권 보장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4일(화요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이어 평창동계특위 회의와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파이낸뉴스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이 실로암웹접근성지원센터와 함께 조사한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장애인접근성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에이블뉴스 등에는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5일(수요일)에는 동북아연구회 창립식 및 기념세미나, 국회 본회의, 민주통합당의원모임인 ‘민주동행’ 오찬 및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시상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후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워크숍에서 강의를 진행했으며, IBSA준비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날의 일정을 마쳤다.

6일(목요일)에는 고위정책회의,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주최 및 축사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회에 참석했다.

7일(금요일)에는 사회복지의 날 및 전국사회복지대회 기념식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IBSA 준비회의를 주재했다.

8일(토요일)에는 대한약사회 신문인 ‘약사공론’ 등에 의약품피해구제사업 관련내용이 보도

되었으며, 10일(월요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11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시각장애인 어르신 방문을 인솔했으며, 같은 날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학술세미나에도 참석했다.

12일(수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조찬 간담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과 현안을 논의한 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체회의와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13일(목요일)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의원 국정감사대비 전략회의 및 오찬에 참석했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전한 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회를 주재했다.

14일(금요일)에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업무보고를 받고 한국물리치료사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으며, 시각장애인 대학생 장학금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국민일보 등에는 시각장애인대학생 장학금 전달식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15일(토요일)에는 라파엘의집 정지훈 원장 박사학위 취득 환영식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4)

국립국어원에서는 누리집(홈페이지, 일명 ‘말터’)을 통해 외국어 어휘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다듬고 있다. 흔히 접하는 일상용어나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 일부 전문 용어 중 다듬어 쓰면 좋은 말들의 권장 순화어를 함께 알아보자.

#### 1) '더치페이(Dutch pay)'의 순화어: 각자내기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뜻하는 더치페이의 다듬은 말은 '각자내기'이다. 각자내기와 비슷한 의미로 ‘각출하자’나 ‘분빠이/뽀빠이하자’라고도 하는데, ‘각출’이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으로써 개인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공동의 뜻을 성사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각자내기의 뜻과는 다르다. 또한 ‘분빠이/뽀빠이’는 일본어에서 들어온 속된 표현이니 각자내기로 쓰는 것이 좋다.

서양에서는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각자내기 문화가 하나의 관습이 되었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각자내기는 일상적인 일이다. 정이 많고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각자내기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다.

-예시

ㄱ.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식사 후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ㄴ. 연인 사이에서도 데이트 비용을 각자내기로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2) '웨딩플래너'의 순화어: 결혼도우미

결혼도우미는 웨딩플래너를 다듬은 말이다. 웨딩플래너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신랑 신부의 일정 관리와 각종 절차·예산 등을 기획, 대행해 주는 전문 직종'을 뜻한다. 결혼을 뜻하는 말인 '웨딩'(wedding)과 계획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플래너'(planner)가 합해진 말로, 결혼관리사·웨딩프로듀서·웨딩코디네이터·웨딩컨설턴트 등 다양하게 불린다.

0

-예시

ㄱ. 최근에는 결혼도우미(웨딩플래너)가 바쁜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에 관련된 모든 계획과 진행을 도와준다.

ㄴ. 취향이 다른 신랑, 신부의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결혼도우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